

2017. 01+02 | Vol. 188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Dail

2017년,
새소망을 담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7년 새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유난히 힘들고 아파했던 지난 한 해를 지나 보내고 2017 정유년을 맞았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음기를 내보내고 양기를 불러오며 액운을 쫓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새해에는 다일공동체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가정에 힘들고 아픈 일보다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일공동체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난 달 거리성탄예배 행사 또한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 속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매년 행사를 위해 후원을 해주셨던 기업들로부터 물품 후원을 받지 못 하게 되었고, 자원봉사자들 모집 또한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개인부터 기업,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일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성을 한데 모아 주셔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나눔과 감동이 넘치는 29번째 거리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성장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난은 주님이 주신 하나의 훈련 과정이며 이같은 훈련을 통해 우린 더욱 단단해집니다. 30여 년 간 고난을 통해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다일공동체가 2017년도 새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어떤 시련이나 역경에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형제, **최인드** 올림



CONTENTS

06 한국을 방문한 르은이와 후원자와의 만남

02

거리성탄예배

05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06

한국을 방문한 르은이와
후원자와의 만남

08

다일의 국내외
현장 이야기



c.o.v.e.r.s.t.o.r.y

사랑의 나눔이 가득했던 2016 거리성탄예배
기업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십시일반 모아진
정성으로 2500여 명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해드렸던 2016 다일공동
체의 거리성탄예배

21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24

신규후원

28

연말정산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김은진, 조우희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여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6년 1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29TH 거리성탄예배

11AM
2016.12.24



이웃과 함께하는 29번째 거리성탄예배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노숙자, 행려자, 무의탁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주한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 대사, 전 월드비전 회장인 박종삼 목사 등 내빈분들, 자원봉사자분들, 다일공동체 스템 등 약 3,000여명이 함께 거리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행사는 홀로 외로이 겨울을 나아 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2,500여 명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방한복과 핫팩 그리고 도시락이 담긴 월동키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3,000

자원봉사자, 다일 스템들





거리성탄예배 모듬

십사일반으로 모아진 정성

지난해는 어지러운 나라 상황 때문인지 항상 후원을 받아왔던 기업으로부터 방한복 지원을 받지 못 하게 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일공동체의 전 직원과 다일공동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어르신들께 드릴 방한복과 핫팩 그리고 도시락을 기적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핫팩은 대한민국 1등 배달앱, '배달의 민족'에서 6,000여 개를 지원해 주셔서 2,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각 두 개씩 모자람 없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뿐 아니라 이번 성탄행사준비를 위해 정성을 모아주시는 국내외 후원자님들, 밥퍼에 봉사를 하러 왔다 어르신들의 딱한 사정에 한 푼 두 푼 모아 방한 키트 비용을 마련해준 자원봉사 학생 등, 든든한 지원군 여러분들이 있어 거리성탄예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일의 숨은 천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월동키트를 받아가시던 어르신들은 다일공동체 직원 한 명한 명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국이었음을 알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귀한 나눔의 손길이 어르신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유난히 추웠던 29번째 거리성탄 행사! 매서운 바람을 뚫고 새벽부터 나와 나눠드릴 물품을 준비하고 행사 안내를 하느라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행복한 얼굴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어찌나 보람이 되고, 감사하던지요.

어르신들, 정성이 담긴 월동키트로 올 겨울 꼭 따뜻하게 보내세요

방한키트 담긴 쇼핑백 전달 중인 봉사자들



어르신들께 방한키트 나눠드리는 모습



방한키트 받아가시는 어르신들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언덕 위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관목이 되어라. 그러나
시냇가의 제일 좋은 관목이 되어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어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 한 포기나 되어라
그래서 어떤 고속도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라
모두가 다 선장이 될 수 없고 선원도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여기서 할 일은 있다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네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기에 달려 있지 않다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르은이와 후원자님과의 만남



처음 만났을 당시 11살 르은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르은이를 기억하시나요?

핏기 없는 얼굴에 가냘픈 팔다리.
심장병으로 고통 받던 열 한 살 르은이가 어느덧 열 여섯,
개구진 소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 다일공동체를 통해 심장병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소년, 르은이.

지난 해 11월, 르은이가 오랜 기간 자신을 후원해준
후원자님들을 만나 뵙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수술 후 5년,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누구보다 밝고 건강한
웃음을 되찾은 르은이!

숨소리마저 희미해가던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후원자님들과 르은이의 가슴 뭉클한 만남,

지금 들려드립니다.



르은이와 최일도 목사

사랑의 나눔 릴레이

“목사님 작은 돈이지만 제 딸처럼 심장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이에게 꼭 쓰여졌으면 합니다.” 심장병으로 23년밖에 못 살 거라는 딸을 두고 엄마는 기도합니다. 이 딸이 3년만이라도 더 살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기를... 하지만 딸은 다일공동체를 통해 수술을 받고 치유가 되어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에까지 진학, 15년 이상 기적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르은이의 후원자 임순자(가명)님은 자신의 딸처럼 심장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새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며 10년 간 모은 적금을 다일공동체를 통해 심장병 환우 르은이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였습니다. 이같은 정성이 모여 2012년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된 르은이. 르은이는 임순자 씨의 바람대로 수술 후 새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난 해 12월, 이같은 인연으로 만남을 가진 임순자님과 르은이. 그들의 만남은 임순자님이 신장병으로 투병중인 한 병동에서 이뤄졌습니다. 20년 간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아오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언제나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 온 임순자 후원자님.

후원자님의 품에 꼭 안겨 감사의 인사를 전한 르은이는 앞으로 자신도 고통 중에 베푼 임순자님의 귀한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에게 더 크게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셋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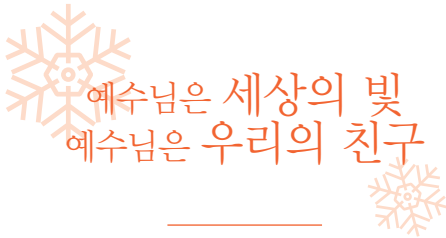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말, 르은이는 오랜 기간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1:1 결연 후원자님을 만나기 위해 광주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후원자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프놈펜 왕립대학교를 졸업한 신진오 형제가 동행했지만 역시 사랑은 만국공통어였습니다.

단 한 번의 통역도 없이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몸짓으로 눈빛으로 나누며 이어간 신정원(가명) 후원자님과 르은이와의 만남. 추운 겨울 이뤄진 그들의 뜨거운 만남은 특별면회에 참여했던 다일 가족들의 가슴에 오래 남을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르은이를 가슴에 안고 얼굴을 부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떨구던 신정원님. 그의 품에 안겨 함께 눈물 흘리던 르은이가 "이제 아저씨라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래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을 울리던지 같이 보는 저희 다일 가족들도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려고야 말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르은이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젠, 저 아버지가 셋이에요!" 캄보디아 수상 빈민촌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와 한국의 교도소에서 살아가지만 가슴으로 낳아주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는 믿음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는 이렇게 세 분의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한 마디가 어찌나 몽클하던지요. 세 분의 아버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르은이가 받은 사랑을 두 배, 세 배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나갔으면 합니다. 르은이가 사랑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네팔에서의 성탄축제

12월 17일이면 네팔 다일공동체에서 1년 가운데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힌두인들과 함께 하는 성탄절 축제입니다.

3억 3천만 신들을 섬기고 있는 네팔. 신으로 섬기는 개에게도 이마에 색을 칠하고 꽃 목걸이를 걸어주는 의식을 하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얼마나 더 고귀한 축제여야 할까요?

네팔은 85%의 국민이 힌두교를 믿고 있고, 18세 이하

의 아이들에게는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나 성경 공부 등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성탄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기에 네팔인들과 고귀한 축제로 즐겼으면 하는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기까지 올해는 특히 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준비를 마친 성탄 행사. 이번 성탄 행사에는 빈민촌 주변의 열다섯 교회와 연합하여 약 2,5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저희는 초청되어온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구절을 새긴 수건과 함께 맛있는 간식을 선물하였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가사를 넣어 힌두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이루어진 2016 네팔의 성탄축제.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중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



- ① 네팔 밤퍼센터 앞에서 아이들 단체사진
- ② 성탄축제 중 산타할아버지와 함께
- ③ 성탄축제 중 아이들 공연 모습

만 모든 난관을 딛고 모두 함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즐거이 어우러질 수 있었던 행복한 축제였습니다. 무사히 성탄 축제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언제나 네팔 다일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아낌 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 맘 다해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네팔 다일공동체에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DaIL**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네 팔 : 977-98038-00670,
 977-98494-58330
 한 국 : 02-2212-8004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 금 주: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네팔 다일공동체 | +977-98494-58330



아이 스페셜 외치는 아이들

필리핀

PHILLIPHINE



류주형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생애 첫 운동화

일대일 아동 결연을 하고 계신 후원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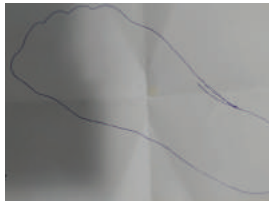
"루이스(결연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은데요... 뭐가 좋을까요?"

다음날 루이스를 직접 만나 물어 보았습니다.

"운동화가 가지고 싶어요. 파란색 운동화요"

"그래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 잠시만요"



루이스가 그린 발 사진

잠시만이란 말을 남기고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5분이나 지났을까 루이스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급

하게 그린 듯 삐뚤 삐뚤한 발 모양이 그려진 종이. 올해로 14살인 루이스는 아직 한번도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 발 사이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루이스 뿐 아니라 다른 아이

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사람들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만 생기면 농구코트를 세웁니다. 바닥이 울퉁불퉁 하고 경사가 저도 공 튀길 공간만 있으면 농구골대를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센터 주변에서 농구를 하는 아이들 중에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농구를 하는 아이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떨어진 슬리퍼에 그것마저 망가지까 맨발로 농구를 합니다.



박스신발을 만들어 신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루이스가 그린 발 사진과 함께 루이스의 이야기를 후원자분께 전했더니 마치 남동생을 보듯 좋아하시며 꼭 좋은 운동화를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생애 처음 자기 발에 꼭 맞는 자신만을 위한 신발을 신고 기뻐할 루이스의 모습을 떠올리니 생각만으로도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아이들에게 꼭 맞는 신발을 선물하는 것,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You are special!"을 체험하게 해 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할 수 있는 일 VS 해야 하는 일

필리핀 밥퍼에 갑자기 네명의 청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은 넷 다 붕대를 온 몸에 덕지 덕지 붙인 채로 찢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넷이서 오토바이를 타다 미끌어져서 한 덩어리로 굴렀다고 하는데요. 한 명은 팔 전체를, 한 명은 허벅다리 전체를 붕대로 덮고 있었고 한 명은 머리에 수건을 덮어쓰고 있었는데 들추어 보니 머리가 찢어져 대충 몇 바늘 꿰매고 온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 한 번 치료를 받았는데 또 병원에 갈 돈은 없어 이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벌써 응급처치를 한 지 꽤 지난 듯 상처에 감아 놓은 붕대들은 피와 진물과 약이 한데 엉겨 마치 갑스한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은 명확하고도 간단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기껏해야 찾아오는 아이들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감기약이나 쥐어주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연고나 한 두개씩 주어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약방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이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니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다시 명확히 떠올랐습니다. 이에 전 소독약, 거즈, 항생연고 등 잔뜩 챙겨 나와서는 쭈뼛대고 있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Come in! brothers, Let's try!"

저는 붕대인지 피부인지 서로 엉겨있는 붕대를 벗겨내는데 큰 소독약 한 통 반을 쓰고 아프다고 욕먹대는 이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한 시간 넘게 시름하고 나서야 허술하게나마 모든 상처를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 센터 아이들 말고도 아는 척 하며 인사할 수 있는 어른 네 명이 더 생겼습니다. 네 명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니 적어도 40명의 주변 이웃의 표정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님 은혜로 겨우 넘길 수 있었지만 마냥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제목이 늘었습니다. 하나님, 다일 천사클리닉을 담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아니면 저라도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길을 열어주세요! **daIL**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필리핀 : +63-927-560-7346 (류주형 원장)

한국 : 02-2212-8004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필리핀 다일공동체 | +63-927-560-7346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후원자님, 감사해요! 저희들 졸업했어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지난 3년 간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 아이들 가운데 돌을 깨거나 부모님의 장사를 돕는 등 학령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상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 호프클래스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곳 탄자니아 호프클래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1년 간 호프클래스에서 공부한 후 일반학교에 편입하여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난 3년간 1,2,3기 학생들을 배출한 탄자니아 호프클래스, 3기 학생들은 재작년 2월부터 공부한 아동들로 작년 12월 14일, 39명 중 너무 어린 세 명의 학생을 제외한 3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지 못한 세 명의 학생들은 내년 호프클래스 4기 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졸업생 36명은 나이와 학습능력에 따라 일반 초등학교 3, 4, 5학년에 입학해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알파벳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선 긋기도 어려웠던 아동들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스와힐리어를 척척 읽고 쓰며 영어로도 간단한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열매만도 감사한데 더욱 감사한 것은 유전병인 씨클셀 아동 아씨피웨와 엘리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일반학교로 편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일공동

체를 만나기 전까지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아씨피웨와 엘리쓰. 이 아이들이 다일공동체를 통해 매월 약을 공급받고, 교육을 받으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일반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니 어찌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졸업생 중에는 알코올중독 어머니의 방치 속에서 다지증이란 질환으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던 다우디도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를 만나 다지증 수술을 받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된 다우디. 다우디는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최근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를 만나 드디어 떠돌이 생활을 끝냈습니다. 다우디가 일반학교에 들어가서도 씩씩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 우리 아동들이 지난 1년간 호프클래스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앞으로 일반학교에 다니게 될 아동들은 교복과 신발, 그리고 학용품이 필요합니다. 2017년 제4기 호프클래스 아동들 중 대부분은 일대일 아동결연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 아동들에게는 좋은 결연자가 절실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후원자님의 열렬한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님들에게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산테 싸나! **daj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255-755-154-246

씨클셀 아동 아씨피웨와 엘리쓰



졸업생들과 다일 스태프들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다일DTS 헌약식

해외 분원 최초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현지에서 다일DTS 헌약식이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다일공동체 대표이신 최일도 목사님의 인도로 30여 명의 다일비전트립 팀 및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던 DTS 헌약식.

이번 다일DTS를 헌약한 사람은 노브아와 사로앗 부부였습니다. 노브아는 10년 넘게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스텝으로 언제나 '예'하며 순종하는 충직한 사람이고, 사로앗은 캄다일 밥상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캄다일에서 빵 기술을 배워 이제는 배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캄다일에서 활동 중 만나 결혼을 한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노브아 사로앗 부부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캄보디아에서 섬김의 훈련인 다일DTS를 헌약 하였으며, 최장 6개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훈련을 추가로 받은 뒤, 한국 다일공동체 본원인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다일DTS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들 훈련생을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다일DTS훈련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님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일 DTS헌약식



오마누억 다일교회 헌당예배 후 단체사진

오마우억 다일교회 헌당

캄보디아 시엠립 주 반티스레이 군 오마누억 마을에 서울 일원동 임마누엘 교회의 헌금으로 세워진 예배당이 건축되어 2016년 12월 24일 드디어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보지 못하고 예수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시골 오지 마을에 예배당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곳이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간이 되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희망합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캄보디아 학교에는 미술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캄다일에서는 2015년부터 박명희 화백님의 후원으로 미술 선생님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위해 미술반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1년 뒤인 작년 11월 25일, 캄다일이 주최하고 70명의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첫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7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입상작들이 나왔는데요. 뛰어난 상상력을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해 낸 학생들을 보니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미술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도 매년 개최하여 아이들이 그림 실력을 키워나가는 데 환경적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예체능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지원전화 많이 주세요! [dajl](http://dajl.com)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855-12-808-861

캄보디아 미술반 아이들이 그린 그림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新年快乐(신년쾌락)”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며 중국 다일공동체 가족들을 대표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세쎬!

베이징에서 날아 온 선물

한 달에 한 두 번씩 베이징에서 택배가 오곤 합니다. 중국 다일공동체에서 2년 동안 아이들의 영어 선생님이로 봉사하시며 매주 수요일 아동 간식까지 책임지셨던 권윤경 선생님께서 1년 전 베이징으로 이사 가신 후 매달 선물이나 간식을 정기적으로 보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라 각종 생활 집기부터 추운 겨울에 얼굴 트지 말라고 전용 로션, 옷,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 과자까지 보내주시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입니다! 권선생님, 늘 아이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베이징에서 온 선물

직업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 김강성

중국 상하이 아래쪽 장가개에서 직업 실습중인 강성이가 5개월만에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최북방 훈춘에서 머니면 남쪽 상하이, 거기서도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외지로 간다고 했을 때 한 달도 못 버티고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버티워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버



김강성

티는 것을 보니 '그 동안 몇 번의 가출로 외지생활에 단련이 되었나?'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실습을 하며 받은 돈으로 동생들을 위한 선물과 간식을 사온 강성이. 고된 실습으로 살까지 빠진 강성이가 다 큰 어른처럼 말하는 것을 보는데 기특한 그 모습에 콧잔등이 다 시큰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동생들 챙기는 모습을 보니 후원자님들이 주시는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현장에서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최원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파송

한국의 선린대학 외식사업과를 졸업하고 제빵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중국 다일공동체의 최원삼. 원삼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일공동체의 DTS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원삼이는 중국 다일공동체의 리일 형님처럼 전세계 어디에서든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 일하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바람대로 지난 12월, 빵을 만들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리일 형님이 있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로 떠난 원삼이. 앞으로 원삼이는 사명 실현지 캄보디아에서 제 사명을 다할것입니다. 오랜 시간 원삼이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끝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최일도 목사님과 원삼이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눈물과 사랑으로 응원해주신 미국의 이숙의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일체, 은혜, 감사입니다! **dail**



최원삼 파송식

중국 다일공동체 | +86-433-753-8004

우간다 Uganda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우간다 다일공동체가 매일 빵퍼로 섬기는 키티코 초등학교는 2016년 마지막 학기 시험을 마치고 12월 초부터 긴 방학에 들어갑니다. 2017년 2월부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두 달 간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아이들이 가고 나면 한동안 키티코 마을은 조금 쓸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결연된 지 1년이 지난 아동의 발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몇 명의 아이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추억이 뭐니?”라고 질문하니, “2015년 성탄예배 때 성탄 선물을 받았던 것과 수업 중에 학비를 가지러 집에 가지 않아도 됐던 것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성장중인 우간다의 아이들. 다가오는 성탄절에도 멋진 선물을 받을 생각에 아이들은 벌써부터 들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간다의 아이들이 물질적 어려움 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길 많은 후원회원님들의 따뜻한 손길 부탁드립니다.

학비 지원을 통해 되찾은 문구치의 미소

우간다 다일공동체의 결연아동 중 2학년 문구치(12살)라는 아이는 2학년 가정방문을 가기로 약속한 날,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날 선생님이 학비를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학비가 없는 문구치는 가정 방문이 있던 날 이후로 지금까지 등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듣고 우간다 스텝들은 선생님과 함께 문구치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구치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모와 사촌누나는 일을 구하러 나가 처음 방문 당시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 일 후, 다시 방문한 아이의 집. 우린 아이의 사촌형을 만날 수 있었고 사촌형을 통해 문구치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사정이 심각했던 문구치의 가정. 이 같은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방문하신 후원자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문구치와 결연을 해주셨고, 다음날 문구치는 밀린 학비를 모두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년 말 시험에서 2학년 중 5등이라는 자랑스런 성적을 받은 문구치. 1:1 결연이 된 아이들에게 후원자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게 나타나는지 느껴지시나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자님들의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우간다입니다! **DaIL**



- ① 2016년 성탄나눔
- ② 발골아동의 집을 찾은 최드보라님

우간다 다일공동체 | +256-77107-2382

미주 U.S.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할렐루야! 다일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든 다일의 후원자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5일(토) 미주 다일공동체에서는 가을정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가을 정기 바자회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사역을 돕고자 열게 되었으며, 이에 수익금 전액은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비전 센터 건축 후원금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미주 다일공동체 이사회가 주최가 되어 바자회에 필요한 물품 및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으며 미주 다일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인근 한인 비즈니스(kevin & J의 장경웅 사장님, C&C 지명구 전 미주 다일공동체 이사님, Jinny corporation의 진은경 이사님, 탐여행사, 명카이로 한방병원의 김종규 이사님, sunflower academy, Rise pest control, Bethel printing, 장터분식, 소나무 정비)에서 역시 바자회 물품 및 후원금을 지원, 포스터 제작에까지 도움을 주셔서 바자회

바자회 모습



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바자회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 시간의 십일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신 심성주 사모님, 신지은, 최숙희, 김미선, 김은정 집사님을 비롯한 기타 자원봉사 학생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주다일공동체가 앞으로 더욱 많은 행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hanksgiving 특별 나눔 행사

지난해 11월 19일(토) 미주 다일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인근 교회와 협력하여 Thanksgiving 특별 나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Thanksgiving 특별 나눔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100여 가정에게 터키와 치킨, 햄 등을 나눔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일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보여주고 또 전할 수 있었던 정말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Crosspointe church와 함께 한 나눔 행사, Thanksgiving 특별 나눔 행사. 앞으로도 Crosspointe church와 같이 인근에 있는 교회들과 계속 좋은 협력 관계를 맺어 뜻 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많은 응원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날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다일의 청년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주 다일공동체·미주종교법인 합동 정기 이사회 개최
 지난해 12월5일(월) 미주 다일공동체가 위치한 아틀란타 돌루스에서 2016년 미주 다일공동체·미주종교법인 합동 정기 이사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번 이사회를 위해 김연수 상임대표님과 박종원 미주 다일 협동원장(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님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그동안 법률 및 회계자문위원으로 오랜 세월 함께 수고해 주신 이강철 변호사님과 웨슬리 윤 회계사님도 참석하여 이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 예서는 미주 다일공동체 2015년 결산과

2016년도 사업보고 및 2017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미주 다일공동체가 한국 다일공동체 본부를 도와 2017년에 네팔, 캄보디아, 탄자니아의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8기 신임 이사님으로 오실 김선식 이사님과 박화실(박화실 보험대표)님을 필두로 앞으로도 미주다일공동체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DAIL**

 **미주 다일공동체** | +1-770-813-0899



Thanks giving 특별나눔행사 모습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변창재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11월 4일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밥퍼

피부와 눈동자 색이 모두 다른 분들이 밥퍼에 봉사하였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입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어가 능숙하신 분들도 계셨고,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함께 모여 봉사를 하며 서로 소통하였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밥퍼 봉사뿐만 아니라 해외 분원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이것 저것 여쭙보시기도 하였고, 밥퍼 밴드와 곰인형도 애타투어 구매하였습니다. 어르신들과 해외 분원의 아동들을 돕기 위해 다일공동체에서 제작한 기념품, 밥퍼 밴드와 곰 인형, 특히 판매 수익금이 소외된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말에 밥퍼 밴드와 곰인형을 줄까지 길게 늘어섬여 구매하였을 때는 정말 감동이되었습니다.

국적과 언어와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모여 함께 나누고 섬겼던 하루! 다양

한 사람들이 일치를 이루며 하나됨을 보여주었던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11월 25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목소리

쌀쌀한 바람이 불던 11월의 끝자락에 한국구화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25명이 봉사를 오셨습니다. 한국구화학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로 정직, 사랑, 꾸준함이라는 교훈 아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잘 듣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하는 '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각자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개별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스스로 자신의 신변을 처리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로의 몸짓, 눈빛으로 소통하며 그 누구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외국인 학생들



다 열심히 일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우리의 우려가 괜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어른신들을 섬기던 학생들. 학생들은 어른신들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며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드신 후 마지막 뒷정리까지 정성껏 어른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던지 주위에선 봉사를 하는 내내 학생들을 향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봉사 후 학생들은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소리를 듣지 못하여 각자 생각한 타이밍대로, 가지각색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던 학생들.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던지, 저희 스텝들의 얼굴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다른 워자지결한 또래 학생들처럼 생기 넘치지 않고 스텝들이 안내하는 봉사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도 조금 있었지만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컸던 구화학교 학생들 덕분에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구화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삶 자체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백민음돌잔치

나눔과 섬김의 삶을 다짐하는 백민음의 돌잔치

지난 11월 8일,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는 밥퍼 최일도 목사님의 자녀 최가람 님, 사위인 백선기 님 부부의 첫 아들 백민음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외손주인 민음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을 명 받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생일 날, 밥퍼에서는 밥상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모여 민음의 첫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날 백선기 님, 최가람 님은 그동안 근검절약하여 모은 정성을 일일 배식비로 밥퍼에 후원하여 감사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민음을 출산한 지 백일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까지 겹쳐 많은 날을 힘들어했던 최가람 님은 온전치 않은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민음이의 첫 생일을 밥퍼에서 맞이하며 매년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눌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아이를 양육하려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참 감동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DAIL**

 밥퍼나눔운동본부 |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DAIL ANGEL'S HOSPITAL

다일 작은천국

DAIL LITTLE HEAVEN



임정순 다일 작은천국 원장

뇌경색, 편마비에도 오투기처럼 일어난 류시재님

거리에서 항상 술과 담배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노숙을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현재 다일 작은천국의 입소자 류시재(60세)님으로 밥퍼에서 식사를 하던 중 김미경 주방장님을 만나 다일 작은천국과 인연이 닿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류시재님은 뇌경색, 편마비를 앓고 계셔서 오른팔이 마비가 되고 말까지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활 의지가 강하여 다일 천사병원에서 세탁도우미로 일을 시작하였고 일을 하며 얻은 월 38만원의 수입으로 브레인 재활 요양병원에서 주 1회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생활은 하셨지만 언어치료뿐 아니라 점점 굳어가는 몸 때문에 재활운동도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 도움의 손길이 간절했는데 때마침, 다일 작은천

국의 직원 한 명이 신청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복주식거래소'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에 류시재님은 치료의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공모사업지원금 500만원으로 평소 자주 다니시던 브레인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신 류시재님. 류시재님은 1년 동안 입원해 계시며 언어치료(복합치료 231번)와 거동치료(중추신경발달 152번, 복합치료 266번)를 받으시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호전된 모습으로 다일 작은천국에 모습을 다시 드러내신 류시재님. 류시재님이 다일 작은천국으로 복귀하신 날, 모든 직원들은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드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건강 회복을 축하 드렸습니다. 앞으로 류시재님이 다일 작은천국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재활에 성공하여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류시재님,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분명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dail**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02-2213-8004



류시재어르신 재입소 단체사진



류시재어르신(전, 후)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am . a . happy . volunteer

밥퍼 나눔운동본부



동부화재 |

동부화재 임직원분들이 밥퍼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조리대를 하나 후원해주셨습니다. 동부화재 임직원분들은 새 조리대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을 섬길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마음 따뜻한 동부화재 임직원분들! 앞으로도 저희 밥퍼와 늘 함께해주세요.



전인기독교교회 |

전인기독교교회 학생들이 밥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밝은 에너지를 뽐으며 봉사를 해주신 중학생 여러분들을 보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육군사관학교 |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나라를 지키는 예비 장교들답게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절도 있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봉사에 임하시어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능률한 태도를 보니 우리나라의 국방은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함께 해주심에 언제나 감사 드리며 늘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작은천국



휘경공업고등학교 생산과 1학년 |

매주 목요일마다 다일 작은천국에 봉사하러 오는 휘경공업고등학교 친구들, 특히 생산과 1학년 학생들은 유쾌하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했는데요, 휘경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작은천국 직원들과 입소자들은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 즐거웠던 하루였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다시 만나 학생들의 에너지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다일 작은천국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RCY팀 |

서울시립대학교 RCY 봉사단은 전원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다일 작은천국을 방문하는 동아리입니다. 이 학생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늘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목욕 봉사부터 주방 도우미, 각종 행사 보조 등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직원들은 감동 또 감동을 하였습니다. 목욕 봉사를 하면서 옷과 신발이 젖고, 주방 도우미를 하면서는 미숙한 칼질에 손을 베고, 접시를 깨뜨리는 등 실수도 많았지만 입소 중이신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자세만큼은 으뜸인 시립대학교 RCY 봉사단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RCY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2017년에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3학년 봉사팀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이 훌기분하게 수능을 마치고 봉사활동을 위해 다일 작은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쳐서 수능이 끝나면 많이 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중요한 수능을 끝내고, 노는 것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곳 노숙인 요양시설을 찾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학생들의 말에 저희 다일 작은천국 가족들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훌륭한 학생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비전트립 |

청량리에서부터 시작된 다일공동체의 비전트립팀이 캄다일을 방문했습니다. 비전트립팀은 캄다일이 오머누억 지역에 지뢰 피해자들을 위해 새로 지은 오머누억 예배당 입주식 예배와 감동플러 일몰예배, 톤레삽 일출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외 캄다일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을뿐 아니라 처음으로 미술대회까지 개최한 비전트립팀. 비전트립 팀은 미술대회에서 1등한 학생에게 자전거까지 직접 전달해주었습니다. 알차던 3박 5일간의 봉사 와 후원 감사합니다.



완주교육청 |

완주교육청 교육산하에 고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스스로 자립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식사도 스스로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가졌던 봉사단. 완주교육청 선생님과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으로 채워 활동과 미술 활동도 진행해주었습니다. 카메라 인화기도 가지고 와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인화해 나눠주기도 한 봉사단.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캄다일과 MOU를 맺어 매년 꾸준히 봉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완주교육청 여러분. 약속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 국제 학교 대학생 과 한국 학생 |

5일동안 센터에서 봉사 온 중국 국제학교 학생들과 한국의 고등학생들. 이들이 함께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밥과 빵을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국제학교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주일 봉사 하고 세계일주까지 한 후 이곳 봉사를 시작했는데 지친 기색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여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SK 우수사원 |

한국의 대기업 SK하이닉스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30명 가량의 직원들이 한 달 넘게 봉사를 오고 있습니다. 봉사하러 오시면서 쌀과 함께 배까지 후원해주신 SK하이닉스 식구들. 하이닉스 분들은 이뿐 아니라 옥상에 쌓인 많은 나뭇잎들도 깨끗하게 청소해주셨습니다. 꾸준히 봉사하고 계신 SK우수사원 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드림후원회 |

행복드림후원회에서 밥퍼 봉사뿐 아니라 쌀까지 지원해주셨습니다. 아이들 눈이 너무 예뻐다며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손잡아 주셨던 행복드림후원회 여러분들. 그 따뜻한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원 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국 다일공동체



김나엽님과 친구들 |

김나엽 님은 연길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2년 전 훈춘에 사는 사촌 언니를 따라 중국 다일공동체에 한 번 방문하신 이후, 아이들을 위한 쌀과 간식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다일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소개하며 사랑의 나눔을 전파하고 함께 실천하는 사랑의 메신저이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첫째 딸 돌잔치 기념으로 쌀과, 우유, 식용유 등을 후원해주신 김나엽 님. 감사합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



예뜰중창단 |

오늘은 필리핀 밥퍼를 아름다운 "예뜰 중창단"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예뜰 중창단은 먼저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아카펠라 찬양으로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한 분 한 분 무릎을 꿇어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맛있는 밥을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아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은 아이들에게는 미리 준비해 오신 풍선으로 강아지, 꽃, 사과, 칼 등 여러 가지 재미 있는 모양을 만들어 나누어 주셨는데 밥 먹으러 온 모든 아이들이 풍선 하나씩을 다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풍선을 만드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설거지까지 모두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오늘 아이들의 밥 한 끼는 "예뜰 중창단"에서 담당하고 싶으시라며 하루 배식비를 하고도 넉넉히 남는 후원을 하고 가셨습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 거기다 마음까지 아름다운 "예뜰 중창단"이 최고야!

우간다 다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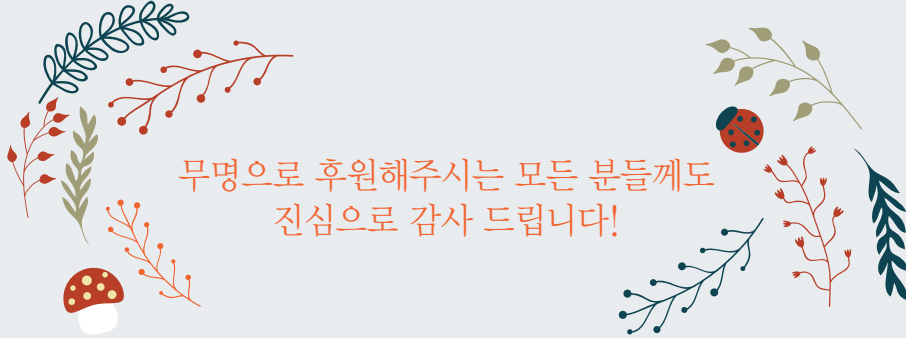


최드보라님 |

다일공동체 DTS 훈련생으로 2개월 남짓 우간다 다일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최드보라님을 소개 합니다. 사교적이며 항상 쾌활한 최드보라님은 아이들을 좋아하는 천사입니다. 매일 키티코 초등학교에서 빵퍼 사역을 하고 아동사례발굴 업무를 수행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힘들어하기보다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 받는 행복이 더욱 크다며 항상 기쁨이 넘치는 최드보라님. 드보라님은 7학년 졸업식이 있는 날, 학교 측에서 요청한 사진사가 오지 않아 졸업생과 선생님이 난감해 하고 있을 때 개인과 단체 사진 촬영도 나서서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비로 헌상까지 하여 모두에게 졸업 선물로 나눠 준 드보라님.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드보라님은 30명의 아동 사례를 발굴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한 명, 아버지께 부탁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5명, 총 6명의 어린이와 결연을 맺었는데 이 같은 드로라님의 넘치는 사랑을 아이들은 분명 두고두고 기억하리라 확신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p>신규후원회원 16.10.16~16.12.15</p>	<p>강부일, 강종명, 강지현, 강춘자, 고금수, 고영애, 고희준, 공명성, 광민정, 광수영, 권경숙, 권영애, 김경천, 김도영, 김명훈,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민지, 김선미, 김선정, 김선희, 김수지, 김수진, 김승규, 김신혜, 김영란, 김예지, 김완식, 김원빈, 김원아, 김유빈, 김은경, 김은숙, 김은영, 김정우, 김종대, 김종수, 김진희, 김태은, 김현숙, 김형봉, 김희정, 나경희, 노시청, 명은숙, 문용상, 문춘희, 문현아, 문혜은, 박민철, 박연숙, 박영수, 박영순, 박용우, 박주현, 박지혜, 박준이, 박혜진, 서울주, 송근준, 송대일, 송종해, 신경희, 신귀연(김형진), 신미향, 신순균, 신해진, 안점임, 엄은성, 여미경, 오경미, 오영화, 오유형, 우철영, 유영지, 윤소연, 윤숙영, 윤정희, 윤향숙, 이광순, 이기수, 이대명, 이상현, 이선옥, 이세한, 이소영, 이연희, 이인교, 이정미, 이정웅, 이하은, 이현희, 이혜원, 이해정, 이화성, 임문식, 임혜란, 장경석, 장성진, 장준홍, 전용우, 정구경, 정명희, 정양수, 정유림, 정윤희, 정지성, 정호엽, 조남범, 조남희, 조민정, 조순희, 조원상, 조율래, 조재중, 조진숙, 조현숙, 주경아, 주현숙, 지은정, 최경일, 최기대, 최영숙, 최은희, 최종영, 최지혜, 한국도양복원기술(주), 한흥순, 흥승만, 흥영주, 흥창환, 황미경, 황소영, 황현운</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16.10.16~16.12.15</p>	<p>후원물품 / 양자선교회(허순덕목사님), 알보젠코리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영일제약, 유엔약품, 튼튼약국</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16.10.16~16.12.15</p>	<p>후원금 / 강은숙,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이장협의회, 고산고등학교, 대한예장 평서노회 북부시찰, 대전선교교회 백기남목사님, 동성교회무한상상대장정, 사단 행복드림 후원회 회장 김상수, 사랑의 교회, 손옥화-김해삼이경이, 캐나다 다일공동체, 포위즈시스템 김규혁</p> <p>후원물품 / SK 하이닉스(옷, 잡화), STF 민들레 봉사단(비누),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이장협의회(띠줄), 방문 여행객(옷), 완주군 통합지원센터 고산고등학교(옷, 잡화, 학용품), 책을 품은 아이논술학원(옷, 잡화), 최현주(커피)</p>
<p>중국 다일공동체 16.10.16~16.12.15</p>	<p>후원금 / 김성재(Obey & Praise), 김화, 권윤경(북경), 다일졸업생 모임 정기후원, 이랜드, 훈춘 마마모임</p> <p>후원물품 / 김강성(아동 전체 외식지원), 권윤경(아동간식 8회 지원), 무명(무80근), 연길 기부천사(옷 2상자, 고등어), 훈춘 마마 모임(침대 겨울 매트리스18개), 훈춘 신촌교회(빵 2상자, 과일2상자)</p>
<p>베트남 다일공동체 16.10.16~16.12.15</p>	<p>후원금 / A PLUS, NAHAL, POSCO VIETNAM, THANH CONG, 고갑순대표(닥터카), 김경중원장님(U.E.C학원), 모금함, 보민건설,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오희승집사님, 이은주님, 장순희님, 호치민중앙교회</p> <p>후원물품 /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김,쌀,간장,휴지,과자,세제,라면,삼푸,치약,행,젓가락,플라스틱용기 등)</p>
<p>필리핀 다일공동체 16.10.16~16.12.15</p>	<p>후원금 / 김혜경, 바랑가이 말리아 주민, 예뎀중앙단, 임실군4녀연합</p> <p>후원물품 / 김경숙 권사 외(의류), 류호열-정명해(55인치 TV), 예뎀중앙단(풍선, 머리띠), 임실군4녀연합(사탕), 황미경(운동화), 권사 외(의류)</p>
<p>네팔 다일공동체 16.10.16~16.12.15</p>	<p>후원금 / Amy님, 김인석-안신애님, 김지은-김지혜님, 남양주 다일교회, 다일 비전트립팀, 리빙스톤 아카데미 10학년 학생, 류은송첫돌, 리치랜드, 박미라(에스더), 불이학교, 송병기 뉴욕목양교회, 윤계수님, 이영건님, 필리핀 다일공동체, 한양로타리 클럽</p> <p>후원물품 / 김인석-안신애님 (초코렛 20만원 상당), 김금자님 (아동선물 30만 상당), 김성애님(초코파이 및 학용품 20만원 상당), 조예슬 (성탄카드 4만원 상당), 한양로타리 클럽 (초코파이 및 비타민 50만원 상당)</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16.10.16~16.12.15</p>	<p>후원금 / 서울가든</p>
<p>우간다 다일공동체 16.10.16~16.12.15</p>	<p>후원금 / 새장승포교회, 선교동호회, 일산 순락팀, 최정순 희망이 님</p>
<p>미국 다일공동체 16.10.16~16.12.15</p>	<p>후원금 / KATHERINE HO, Counseling Education Center for Asian American Women Inc, HELEN KIM, 김여준,김은송, 목대권-천수희, 박화실, 서혜림,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 기쁨목장, 안지환-송보름, 유성욱, 이영자, 이정희, 이진미, 임우연, 잔스크리한인교회, 정호정</p> <p>후원물품 / KEVIN & J(바자회 판매를 위한 새옷 10박스 후원), 김은주, 민지홍 이사 (바자회 판매물품), 유재준 (바자회 판매를 위한 헌옷), 은현아 이사(새옷 30벌), 정에스더, 지명구 장로(신발, 가발), 진은경 이사(바자회 판매물품- 드라이기, 매직기, 세안기계, 립글 로즈, 옷, 책상, 침대SHEET SET)</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니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며 양육할 수 있습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 위하여 쌀을 릴레이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s No. 192 at Jangwani Beach, Kinondoni Muniopality,
Dar_es_salaam city Tanzania
Tel. +255-755-154-246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기부금 영수증



후원회원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발송일시	구분	후원금 공제범위
1월 중 우편 발송 (미수령자에 한해 연락주시면 이메일, 팩스 발송)	개인 (주민등록번호)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 공제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내에서 전액 공제

다일공동체 연말정산 안내

Q. 다일공동체에 후원한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일공동체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은 타인 명의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어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월 공제를 통해 올 해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절약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우편물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으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일공동체 홈페이지(www.dail.org)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

179기/ 1월 10일 ~ 1월 14일

180기/ 2월 7일~2월 11일

2단계 작은 예수 살아가기 (4박 5일)

49기/ 1월 17일 ~ 1월 21일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4박 5일)

23기/ 1월 31일 ~ 2월 6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 031 585 2004

010 6375 8004

홈페이지 : www.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김철민 형제 010 2752 9004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뱃퍼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추가



QR코드로
추 가

또는

아이디로 추가

dailwf



친구등록
완 료



다일QR코드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작 성

예금주 서명 必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다일직원
확인전화